

102m, 34층 높이...거창 승강기시험타워

광주-대구 고속도로 명물로 떠올라

강진성 news24@gnews.co.kr

시원하게 뚫린 광주-대구 고속도로(옛 88고속도)가 확장 개통된 가운데 거창승강기밸리의 승강기 시험타워가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승강기시험타워는 102m(34층)높이로 거창지역 어디서나 한 눈에 들어오는 위용을 자랑한다. 특히 광주-대구고속도로 구간 주변에 별다른 건축물이 없어 승강기시험타워는 거창을 대표하는 상징물 역할을 하고 있다.

승강기시험타워는 거창승강기밸리내 승강기R&D센터의 핵심 시설물로 승강기 제품의 주행성능시험과 안전장치 낙하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대 분당 540m(초당 9m) 속도의 승강기 시험이 가능하다.

타워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설치돼 있어 거창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공용 승강기시험 타워인 이곳은 2014년부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운영하고 있다. 모든 승강기 제품이 국내에 시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에서 필수시험을 거쳐야 한다.

강진성기자 news24@gnews.co.kr



거창승강기밸리의 승강기시험타워가 광주-대구 고속도로에 인접해 거창을 대표하는 시설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승강기 제품에 대한 주행시험, 낙하시험 등을 하는 곳으로 국내 유일한 공용 승강기시험타워다. 높이는 102m로 34층 높이에 해당된다. 강진성기자



거창승강기밸리의 승강기시험타워가 광주-대구 고속도로에 인접해 거창을 대표하는 시설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승강기 제품에 대한 주행시험, 낙하시험 등을 하는 곳으로 국내 유일한 공용 승강기시험타워다. 높이는 102m로 34층 높이에 해당된다. 강진성기자